

『經書釋義』를 다시 찾아*

서종학**

- I. 서론
- II. 서지적 재검토
 - 1. 저자와 저술 시기
 - 2. 異本
- III. 국어학적 재검토
 - 1. 표기
 - 2. 통사적 구성체
 - 3. 난해한 어휘
- IV. 마무리

【국문초록】

이 논문은 『경서석의』와 관련된 논의를 다시 검토해 보고, 그 간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새롭게 구명해 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먼저 저자와 저술 시기에 대해 논하였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 책은 이황의 훈석을 모은 것을 후대에 간행한 것이며, 퇴계 선

* 이 연구는 2007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07) 그리고 2007년 구결학회 여름 학술대회(소수서원)에서 발표한 것을 크게 수정·보완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생이 훈석을 달아서 ‘自淨錄’을 낸 시기는 1550년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異本에 관해서는 서종학(1989)와 달리 논할 점은 없다. 다만 몇몇 해제에서 보이는 상이한 서술을 지적하고 고친다.

『경서석의』를 국어학적으로 재검토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에 중점을 둘 수 있다. 하나는 구성으로서, ‘-르디-’ 구성 또는 ‘-르시-’ 구성에서 ‘-르’ 동명사 구성과 ‘-르 것’ 구성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들의 의미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경서석의』에 등장하는 독특한 어휘로서, ‘억셔히’, ‘늦곳’, ‘에우시와, 닛우취여’의 의미를 고찰하였고, 당시 안동지방 방언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李滉, 經書釋義, 三經釋義, 四書釋義, 異本, ‘-르디-’ 구성, ‘-르시-’ 구성, ‘-르’ 동명사 구성, ‘-르 것’ 구성, ‘억셔히’, ‘늦곳’, ‘에우시와, 닛우취여’

I. 서론

이 논문은 서종학(1989, 1991)¹⁾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經書釋義』와 관련된 여러 논문, 해제 등을 다시 검토해 보고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새롭게 구명해 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²⁾

1) 1988년 즈음에 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편찬간행할 계획을 세워 원고를 집필할 때에, 故 安秉禧先生께서 『삼경사서석의』 항목을 맡기셨다. 이를 계기로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분석하여 제출한 것이 서종학(1991)이고, 그 해제 원고를 제출한 후 이를 補充하여 내놓은 논문이 서종학(1989)이다. 해제 원고를 제출하고 나서 여러 해 후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출판되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뀐 것이다.

2) 『經書釋義』란 書名은, 金應勳의 발문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서종학(1989;

서종학(1991) 이전에 이미 小倉進平(1920=1964), 최현배(1940=1982), 이가원(1971) 등의 『경서석의』에 관한 해제가 있었다. 小倉進平(1920=1964)은 『經書釋義』에 대해 ‘1권, 이퇴계, 만력37년’으로 소개하고 이어 ‘대학·중용·논어·맹자·사·서·주역 7서를 석의하여 합철한 것’이라 하였다. 금응훈의 발문을 인용하면서 ‘이퇴계가 增訂한 것을 만력 37년(1609)에 여러 제자들의 손으로 集成된 것이라 하고 문제되는 어구의 뜻과 독법에 대해 한문 또는 언문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고 했다.³⁾ 최현배(1940=1982)에는 서명을 『三經四書釋義』라 하고 ‘7권 1책’이라 했다. 이어서 ‘李滉 제자가 엮었고 만력 37년에 간행하였으며 경서에서 문제되는 어구를 우리말로 설명한 것’이라 해제하였다. 이가원(1971)에는 국립도서관 소장의 사서석의를 해제하였는데 금응훈의 발문에 의지하여 소개하고 있다.

서종학(1991) 이후의 해제로 윤혁동(1991), 이윤희(1997), 장윤희(2001), 황선엽(2003)⁴⁾ 등이 더 나왔다. 윤혁동(1991)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사서석의』를 해제한 것인데 ‘1권 1책 목활자본’이라 한 것과 ‘경상감사 최관래(崔瓘來)의 편집, 간행’이라 한 것이 특이하다.⁵⁾ 대학석의 99항목, 중용석의 188항목, 논어석의 294항목, 맹자석의 161항목, 총 742항목이 수록되어 있다고 소개한 것도 특징적이다. 장윤희(2001)은 서울대학교규장각에 소장된 『삼경석의』, 『사서석의』, 『삼경사서석의』 등 여러 이본을 함께 고찰하여 해제한 것으로, 서종학(1991)에서처럼 국어학적 검토를 함께 하였다. ‘언어 사실은 근대국어 시기의 것이지만 중세국어의 모습을 유지한 것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황선엽(2003)은 서강대 소장의 『사서석의』를

10)에서 사용하기를 주장하였는데, 이충구(1992;78)에서 이에 동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소창진평(1920=1964;178)에는 『시석의』 첫 장의 사진이 실려 있으나 어느 이본의 첫 장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4) 황선엽(2003)의 연도는 ‘디지털한글박물관’의 개관 연도를 사용하기로 한다.

5) ‘목활자본, 최관래’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목판본 1권 1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서두에는 ‘1권 1책’이라 하였지만 본문에는 4권 1책이라 수정하였다. 여기에도 국어학적 검토가 있었는데, ‘16세기와 17세기의 것이 섞여 나타난다.’고 했다.

『경서석의』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서지 및 국어학적으로 분석한 서종학(1989) 외에 몇몇 연구논문이 있다. 심경호(1990)는 『경서석의』에 나타난 音注의 방식을 논하였고, 이충구(1992), 고순선(1996), 박소동(1996), 김영호(2001, 2004) 등은 경학적 특징 등 동양 철학과 관련하여 『경서석의』를 논하고 있다. 송정숙(1990)은 사서 언해를 간행하게 되는 과정을 논하면서 『경서석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경서석의』에 관한 해제와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서로 상충되는 내용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으며 아직도 논의되지 못한 내용이 남아 있다. 그래서 서종학(1989)의 논의를 재검토하면서 상충된 부분을 바로 밝히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논의되지 못한 것을 논하기로 한다.

II. 서지적 재검토

1. 저자와 저술 시기

琴應燾의 발문에 의하면, 퇴계 선생은 삼경과 사서 중 문제되는 어구를 적고 이에 대한 여러 학자의 해석과 그 해석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신의 해석을 함께 적어 두었으나 임진란에 불타 버렸는데, 퇴계 死後 40년인 광해군 원년(1609)에 慶尙監司 崔瓘의 도움으로, 금응훈 등의 퇴계 문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寫本을 찾아 이를 ‘略加 讎校’하여 간행한 것이 『경서석의』이다.⁶⁾ 즉, 일찍이 경서의 해석에

6) 금응훈과 그의 형 금응협에 대한 소개가 송정숙(1990:92~93)에 나와 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해석을 考究한 결과를 정리하여 釋義로 내놓으신 退溪 선생의 저술인 것이다. 퇴계 선생이 경서와 그 석의에 관심을 가진 사실은 다음 몇몇 기록의 도움으로 확인된다.)

- 1) a. 경·전·자사를 두루 널리 살피지 않은 것이 없고 ... 사서·오경에 힘을 쏟았으며 ... “경서의 글 풀이에 천착과 잘못 전해지거나 이치에 틀리는 것들이 많아서 경전의 뜻을 잃고 후학을 그르침이 매우 많다.”고 하였다.(退溪先生言行通述, 鄭惟一)
- b. 퇴계 선생이 釋義를 合成하여 定하였다.(四書栗谷諺解跋, 洪啓禧)
- c. 퇴계 선생이 여러 설을 모아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했다.(栗谷四書釋義序, 宋秉浚)
- d. 論語講錄·中庸釋義: 선생이 찬한 사서석의에서 나온 것이다.(退溪先生言行錄, 筭記諸子目錄)
- e. 퇴계 선생이 여러 사람의 訓釋을 모아 證訂하였다.(經書釋義跋, 琴應燾)
- f. 퇴계 선생은 또 일찍이 연구하신 여가에 난해한 부분을 만나면 곧 주석을 내었고...(高峯集 권3, 朱子書節要跋)

대유학자인 퇴계의 입장에서 보면 사서와 삼경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여기에는 『경서석의』의 간행 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7) (1)의 내용과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 a) 經傳子史 靡不博觀 然 自少 用力於四書五經 而於四書易經爲尤深 ... 諷誦庸學心經等書以爲常 謂經書辭釋 多穿鑿訛謬 失經旨 而誤後學甚多 於是 正其穿鑿 定其訛謬 有以還經傳之舊旨 復聖賢之本意 而學者亦不爲俗儒曲說所惑矣
 - b) 經書之有諺解厥惟久矣 而諸家互有同異 至退溪李先生合成釋義而乃定(1749)
 - c) 肆我東有諺解以方言釋聖訓諸家互有異同 至退溪先生聚重說而折短取長 一從朱子之解而析其句讀解其旨意 ...
 - d) 論語講錄·中庸釋義: 出先生撰四書釋義(숙종조)
 - e) 右經書釋義 惟我退溪先生哀聚諸家訓釋而證訂之(1609)
 - f) 而先生又嘗於玩釋之餘 遇難解處 輒有註語...

해석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송정숙(1990;89)에 따르면, “16세기에는 중세적인 사회질서의 강화를 위한 신유학의 이론전개가 심화되어” 갔고 “이러한 이론전개는 16세기 후반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고 하였는데 퇴계의 경서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퇴계 선생이 응한 것이라 생각한다.⁸⁾

『경서석의』의 저술 시기는 그리 관심을 끌지 못했던 사항이었다. 대개 『대학석의』 말미에 ‘追附’되어 있는 ‘答奇明彦別紙’의 ‘庚午十一月己卯所改’ 구절을 보고 1570년 퇴계 선생이 서거하신 해로 저술 시기를 보고 있다. 정순목(1987)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한 김영호(2004)에도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⁹⁾ 그러나 ‘경오년’(1570년)은 ‘답기명언별지’를 쓴 해이고,¹⁰⁾ 이것이 나중에(1609년) 대학석의에 ‘추부’된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서종학(1989)에서는 1570년 이전에 『경서석의』가 저술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심경호(1990)는 명종 8년(계축, 1553) ~ 명종 10년(을묘, 1555)에 『경서석의』가 저술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 2) a. 趙穆에게 보낸 편지(1555)에 在京 時에 考訂한 ‘啓蒙疑義’를 개정코자 하니 돌려 달라고 하고, 諸經釋義 중 易釋에 대해 評駁改定해 주기를 청하였으며, 또 詩書論孟의 釋義는 烏川에서 오지 않았다 하였다.
- b. 명종 12년(1557) 정유일에게 보낸 서한에는 經書釋義를 具鳳齡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였다.

8) 심경호(1990;152)에서는 『경서석의』가 “기왕의 ‘석의’를 검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퇴계의 專書라 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

9) 김영호(2004;17)의 각주에 정순목(1987;71)의 추정이 오류라 지적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10) ‘庚午十一月’은 퇴계가 ‘奇明彦’의 설을 따라 자신의 說을 고친 때임을 퇴계 연보를 비롯한 몇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 선조 7년(1574) 10월 19일에 내린 經書吐釋의 제정령에, 유희춘은 퇴계의 ‘四書五經口訣諺釋’의 원고 이송을 청하는 계를 올렸다.

(2a)로 보면 『경서석의』는 단시일에 저술한 것이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쓰고 고치기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 (2b)로 보면 1557년에는 이미 『경서석의』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眉巖日記에 기록된 (2c)로 보면 이 때 이미 원고가 있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선조 18년(1585) 교정청에서 언해본 찬정을 재개할 때 퇴계의 『경서석의』를 참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退溪集과 高峯集에 실려 있는 다음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傍證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 3) a. 就中傳聞中和郡刻一書 曰庸學釋義 附以語錄釋 謂皆混說云 ... 卽索取其板 監視燒火於庭中 而後乃去(『퇴계집』 권17)¹¹⁾
 b. 前日承教毀板事 到館之初 卽索其板觀之 則只六板 所刊二十四張 併畀火於庭 僚友以爲不可忍(<兩先生往復書> 권2의 ‘先生前上狀 李知事宅’)
 c. 中和新刊退溪學庸語錄解疑 合[一冊 先生聞之 貽書大升 請焚毀故作]...(『고봉집』 권1, 寧賓館)

퇴계 선생은 中和郡에서 ‘語錄釋’이 붙은 『庸學釋義』를 간행했는데 모두 퇴계의 설이라 한다면서(3a), ‘어록석’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용학석의』는 자신의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불 만한 것’이 아니므로 불태워 달라는 부탁을 1567년에 고봉 기대승에게 하였던 것이다.¹²⁾ 이에 대해 고봉은 퇴계의 부탁을 성실히 이행하

11) 『고봉전서』의 <兩先生往復書> 권2 ‘明彦拜白 奇舍人侍史’에 같은 내용이 있다.

12) 고봉의 41세(1567년) 때 遠接使從事官으로 관서로 갈 때의 일이다.

였다고 하고 간행된 것이 24장임을 아울러 밝힘(3b)과 동시에 이런 사실을 시로 남겨 확인하고 있다(3c). 퇴계집과 고봉집의 기록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중화군에 퇴계의 저술이라는 『용학석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이로 보면 퇴계의 『경서석의』는 이미 1567년(퇴계 67세) 경에 전국에 널리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琴應燾의 발문에 나타난 다음 구절에서 『경서석의』가 저술되는 경위와 함께 저술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4) 又因門人所嘗問辨者而研究之 皆先生手自淨錄者也(금응훈 跋文)

발문에 의하면, 일찍이 경서에 대해 問辨, 研究한 것을 퇴계 선생이 손수 깨끗이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일찍이(嘗)’란 말과 ‘문인들과 문변한 것’이란 구절 그리고 ‘선생이 손수 기록할 수 있을 때를 생각하면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 『경서석의』를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심경호(1990;151-152)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¹³⁾

2. 異本

『경서석의』는 『삼경석의』와 『사서석의』로 분책되어 전하기도 하고 합책되어 전하기도 한다. 먼저, 현재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본들을 들어 보기로 하자. 『삼경석의』, 『사서석의』, 『삼경사

13)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표기된 상태를 살펴보면 『삼경석의』 중 ‘시석’이 가장 먼저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시석’에만 나타나는 ‘-리’(예; 업습가),의 표기가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나는 ‘-리’의 표기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또 이런 표기가 ‘시석’에만 보인다는 것은 1609년 『경서석의』를 간행할 때에, ‘시석’을 저술할 때의 모습을 유지하려 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서석의』, 『경서석의』의 이름으로 소개해 놓은 각 도서관 도서목록의 서지사항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¹⁴⁾

5)

약호	소장처(도서번호)	서명	책 크기	반엽광곽 크기
영1	영남대(고140)	三經釋義	31.5×22.5	22.2×18.5
영2	영남대(고140-2)	三經釋義	27.5×22.5	22.2×18.5
고1	고려대(A11-A22)	經書釋義	31.3×22.2	22.2×18.3
고2	고려대(A11-A22A)	經書釋義	32.3×21.2	22.1×18.2
서1	서울대(11489)	三經釋義	32.4×23.1	22.2×18.4
국1	국립도서관(일산)	三經釋義	29.9×21.9	21.7×18.3
암1	성암문고(1-5)	三經釋義	30.3×22.4	22.1×18.5

6)

약호	소장처(도서번호)	서명	책 크기	반엽광곽 크기
영3	영남대(148)	四書釋義	35 ×23.5	22.2×18.5
서2	서울대(일사..sa)	四書釋義	30.6×22.4	21.8×18
성1	성균관대(A9A-10)	四書釋義	29 ×22.7	22.5×18.4
고3	고려대(A11-A19A)	四書釋義	30.7×22.1	22.1×18.2
계1	계명대(고180.8)	經書釋義	32.4×22.7	22.1×18.5
국2	국립도서관(무..)	四書釋義	32.4×22.0	22.0×18.5
국3	국립도서관(한..12)	四書釋義	31.9×23.1	22.4×18.5

7)

약호	소장처(도서번호)	서명	책 크기	반엽광곽 크기
서3	서울대(1032)	三經四書釋義	35.1×23	22.2×18.4

14) (5-7)은 서종학(1989;3)의 <표1>을 근간으로 한 것이다.

(5)는 삼경을 석의한 것인바, <고1>과 <고2>를 제외하고는 모두 ‘삼경석의’란 서명으로 소개하고 있다. (6)은 사서만 석의한 것으로, <계1>의 ‘경서석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서석의’란 서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7)은 삼경과 사서를 석의하여 합책한 것인데 <서3>에서도 ‘경서석의’란 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서중학(1989)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료가 몇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간단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약호	소장처(도서번호)	서명	책 크기	반엽광곽크기
한1	한중연(A1-3)	三經釋義	32 ×22	22.2×18.4
한2	한중연(A9A-2)	四書釋義	32 ×22.4	
강1	서강대(고서사53)	四書釋義	30.8×22.1	22.1×18.3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과 서강대학교도서관의 도서목록 그리고 그 사진들을 검토해 보면 (5-7)에서 보인 이본들과 다른 점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강1>의 도서목록에는 어미를 上下內向混葉花紋魚尾라 기록해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이본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흑어미 또는 3엽어미가 간혹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⁵⁾

(5-8)의 이본들이 가지는 차이점을 제외하고 공통되는 판식을 보이면 (9)와 같다.

15) 그 밖에 단국대학, 부산대학(필사), 중앙대학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위에 소개되지 않은 ‘사서석의’가 있으나 이들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단국대학, 중앙대학 등에 ‘삼경석의’가 더 있다.

9) 공통되는 판식

木版本,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四周雙邊, 有界, 11行 22字, 注雙行
 版心名: 詩釋, 書釋, 易釋上, 易釋下; 論語釋, 孟子釋, 中庸釋, 大學釋

반엽광곽의 크기로 보면 <국1>과 <서2>의 그것이 다른 것에 비해 작은 것이 눈에 띄지만, 그 외에는 모두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인출의 선후가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본마다 낙장 등으로 인해 다소의 다른 점이 있으나 대체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삼경석의』는 ‘詩釋’ 25장, ‘書釋’ 23장, ‘易釋上’ 9장, ‘易釋下’ 12장으로 모두 6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서석의』는 ‘논어석’ 14장, ‘맹자석’ 9장, ‘중용석’ 6장, ‘대학석’ 5장, 모두 34장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서석의』는 총 10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경서석의』에 대한 도서목록 및 해제는 매우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이본들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좀더 상세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이나 잘못된 記述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 기록되지 않고 누락된 것도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¹⁶⁾

- 10) a. <서1> 등에는 『삼경사서』를 ‘3권 1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 b. <서3> 등에서는 『경서석의』를 ‘7권 1책’이라 하고 있다.
- c. <고3> 등에서는 『삼경석의』의 판심명을 ‘詩譯, 書譯, 易譯’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사서석의』의 판심명을 『孟釋』이라 하고 있다.
- d. <고1>과 <고2> 그리고 <계1>에서 ‘경서석의’란 명칭을 사용

16) (3) ‘성1’의 반엽광곽 크기를 도서목록에서는 22.5×14라 하였으나 실사한 결과 22.5×18.4임을 서종학(1989;3)에서 밝힌 바 있다.

하고 있다.

- e. 윤혁동(1991)에는 『사서석의』가 ‘목활자본’이라 했다.
- f. 윤혁동(1991)에는 『사서석의』가 경상감사 ‘崔瓘來’의 도움으로 출간되었다고 했다.

(10a)의 경우 『삼경석의』 중 ‘周易釋義’는 ‘易釋上’과 ‘易釋下’로 나뉘어 있으므로 이를 別卷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4권 1책’으로 기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0b)의 『경서석의』는 8권 1책으로 소개되어야 한다. (10c)의 판심명은 ‘詩譯, 書譯, 易譯上, 易譯下’와 ‘論語釋, 孟子釋, 中庸釋, 大學釋’으로 각각 기록되어야 한다. (10d)에 대해서는 『삼경석의』, 『사서석의』, 『경서석의』를 분명히 구별하여 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밖에, <서2>에서 『사서석의』가 모두 31장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34장의 잘못이며 <영1>에서 삼경석의가 69장으로 되어 있으나 ‘시석의’ 23장이 낙장임을 밝히고 있지 않다.¹⁷⁾

한편, (10e)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윤혁동(1991)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사서석의』가 ‘목활자본’이라 했는데, 정밀한 실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는 목관본의 잘못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에도 목관본으로 밝히고 있다. 또 (10f)에서 감사의 이름을 ‘최관래’라고 한 것은, 금응훈의 발문 중 “戊申冬崔監司瓘來至陶山”에서 ‘來’를 인명의 한 부분으로 착각한 데서 연유하는 듯하다. 감사 최관이 ‘來至陶山’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심경호(1990), 이충구(1992), 김영호(2001) 등의 여러 논문에서도 감사를 ‘崔瓘’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더욱이 『조선왕조실록』에서 ‘崔瓘來’라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과 『경상도선생안』을 보면 ‘崔瓘’의 생몰연대는 1563~1630년이고 1608~1609년에 경상감

17) 각 이본의 계통과 인쇄의 선후, 선본 등에 대해서는 서종학(1989;3~12)를 참조.

사를 6개월 동안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III. 국어학적 재검토

1. 표기

『경서석의』의 한글 표기 부분을 보면 대개 16세기말의 모습을 보인다. 즉 중세국어 말기의 모습과 근대국어 초기의 모습을 보이는데 대체로 전자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 11) a. 뻘(역상5앞), 쓰미니(역하1뒤), 쓰디(역상1앞)
- b. 더조옴씩(14앞), 잠깐(논10앞), 썸(맹6앞), 업거니썸녀(맹6뒤)
- c. 햏야사(논2앞), 햏고사, 이라사(논8뒤), 거의
- d. 햏야아(역하6앞), 햏거아(역하6앞), 거의(시6앞, 시19뒤)
- e. 햏여사○...이라사(역하4뒤), 말미사매니라(시13앞)

(1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ㅍ-’(用)와 같은 제한된 어휘의 경우 아직 ㄷ계 합용병서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그 이외에는 (11b)에서처럼 ㄷ계 합용병서만 보인다. 또 (11c)처럼 △이 사용된 예도 가끔 보이지만 (11d)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의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고 있으며 가끔 (11e)의 ‘△>ㅍ’도 발견되고 있다.

서중학(1989)에서 언급한 바 있는, 『경서석의』 중 ‘시석의’에서만 발견되는 다음 (12)의 예를 보자.

18) ‘최관’에 대해서는 송정숙(1990:91~92)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12) a. 憎혹가(시6앞), 몬혹가(시16앞), 업습가(시6앞), 흐습가(시23앞)
 b. 依혹거시(시13뒤), 아늑거시며(시13뒤),
 c. 혹글(시15뒤)

‘시석의’에는 중세국어 문헌에서 ‘-리’로 표기되던 것이 ‘ㄱ’ 앞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리’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¹⁹⁾ 다만 (12c)의 ‘혹글’은 (12a-b)에 유추된 표기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1609년에 『경서석의』를 간행할 당시에 가능한 한 원래의 모습(필사한 모습 또는 퇴계의 自淨錄의 일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시석의’가 다른 경서의 석의보다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통사적 구성체²⁰⁾

퇴계 선생이 경서의 내용을 證訂한 방식 즉, 석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²¹⁾

- 14) a. 潛龍; 潛흔 龍이니(역상1앞)
 b. 未安上; 上에 안티 몬호미라○몬홀시라(역하5앞)
 c. 鵲巢; 鵲의 巢애○鵲의 둔 巢애○鵲이 巢를 두매(시1뒤)
 d. 來ᄃ야 極계 ᄃ시니○極ᄃ시니 前說是(시22앞)
 e. 召公을 作ᄃ야 考ᄃ니 按恐當云 召公에 作ᄃ야 考ᄃ니(시22앞)

19) 서종학(1989;13)의 설명을 장윤희(2001;21)에서 바로 잡아 주었다.

20) 통사적으로 몇 개의 형태소가 어울려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이를 줄여 ‘구성’이라 부르기로 한다(예; ‘-리디’ 구성, ‘-리시’ 구성, ‘-리’ 동명사 구성, ‘-리 것’ 구성)

21) 서종학(1989;6) 참조. 이충구(1992;88-93)에는 석의 형식을 ‘구두 및 한문주석, 독음, 구결, 번역’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한편 심경호(1990;153-164)에는 퇴계의 音注 방식 특히 破讀字의 분석 방식, 注音를 밝히는 데 참조한 여러 학자 및 학설을 소개하고 있으며, 고순선(1996;9)에도 퇴계가 참고한 여러 서적과 학자들에 대해 밝히고 있다.

(14a)는 한 가지 해석만을 보여 주는 것이고 (14b-c)는 두세 가지 해석을 함께 제시한 것이며 (14d-e)는 몇 가지 해석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경서석의』의 협주 부분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 가지 구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비판해 놓은 부분(14b-e)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면, 해당 구절의 의미 파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당시의 통사적 구성의 의미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의존명사 ‘그, 스’가 포함된 구성이 한편으로는 문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르’ 동명사 구성이나 ‘-르 것’ 구성 등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그 의미나 그들 간의 의미 차이를 고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서석의』에 나타난 다양한 석의를 통하여 ‘-르디’ 구성, ‘-르시’ 구성, ‘-르’ 동명사 구성, ‘-르 것’ 구성이 지니는 의미의 異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르’ 동명사 구성과 ‘-르 것’ 구성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다음 예를 보자.

15) 스스로 復暈 거시니○復호미니(역하3앞)

(15)는 ‘初九 悔亡 喪馬 勿逐 自復 見惡人 无咎’(易하38睽²²)의 ‘自復’에 대한 해석이다. 이 해석을 따르면 (말이 스스로) ‘돌아올 것이니’와 ‘돌아옴이니’²³)의 두 해석이 다 좋다는 것이고, 이는 그 의미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스스로 復暈이니’(선3;30)와 ‘스스로 돌아올 것이니’(성;하116)로 풀이

22) 원문의 해석에는 주역언해(선조본), 성백효(1998), 柳正基(2003), 지식공학(2001)을 참조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약칭은 차례대로 (선), (성), (유), (지)로 한다.

23) 『경서석의』에 실린 구절의 해석은 퇴계학연구원(1997)을 대체로 참조한다. 이하 동일하다.

한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自復’까지의 내용과 그 뒤의 내용이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듯하다. 즉 ‘初九는 뉘우침이 없어지니, 말을 잃고 쫓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올 것이니’와 ‘惡人을 만나보면 허물이 없으리라.’(성;하116)는 인과, 선후, 계기와 같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본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사실로 보면 ‘-ㄱ’ 동명사 구성과 ‘-ㄴ 것’ 구성의 의미가 유사하여 서로 통하여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서석의』에서 ‘-ㄱ’ 동명사 구성과 ‘-ㄴ 것’ 구성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없는 데서 더욱 그러하다.

‘-ㄱ’ 동명사 구성은 ‘-ㄴ디’ 구성과도 관련 있는데 이를 (16)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6) a. 庭에 揚호미니○홀디니(역하4뒤)
 b. 揚호야 號호미니○홀디니 此說非(역하4뒤, 揚號)
 c. 趾에 良호요미라 一云 趾에 良호디라 非(역하7앞, 良其趾)
 d. 協호느니이다○協홀디니이다○協호미니이다 第三說不是(서7뒤)

(16a)는 ‘夫 揚于王庭 孚號有厲 告自邑 不利即戎 利有攸往’(역하 43夫)의 ‘揚于王庭’에 대한 석의로서 ‘뜰에 드날림이니’로 해석하거나 ‘드날릴지니’로 풀이하여도 좋음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ㄱ’ 동명사 구성과 ‘-ㄴ디’ 구성의 의미가 대동소이하여 어느 쪽을 사용하든 의미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⁴⁾ 이 경우에도 (15)와 같이 ‘夫는 王의 朝廷에서 드러냄이니’와 ‘至誠으로 號승하여 위태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야 한다.’(성;하195)가 서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전후 내용이 ‘-ㄱ’ 동명사 구성과 ‘-ㄴ디’ 구성으로 연결되어도 뜻에는

24) 정재영(1996;34)은 ‘-{ㄴ, ㄹ} ㄷ {조사, 계사}’의 보문 구성이 명사형 어미 ‘-음/음’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고 하면서 전자의 구성이 점차 ‘-음/음’이나 다른 의존명사 구성으로 대체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크게 훼손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16b-d)의 예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16b)는 ‘九二 惕號 莫夜 有戎 勿恤’(역하43夬)의 ‘惕號’에 대한 석의인바, ‘두려워하여 호령함이니’로 뜻을 새기는 것은 좋으나 ‘호령할지니’로 새기는 것은 그르다고 하였다. (16c)는 ‘初六 艮其趾 无咎 利永貞’(역하52艮)의 ‘艮其趾’에 대한 견해를 밝힌 부분인데, ‘발꿈치에 그침이다’로 해석하되 일설인 ‘발꿈치에 그친지라’는 그르다고 하였다. (16b-c)에서는 (16a)에서와 달리 ‘-口’ 동명사 구성과 ‘-르다.’ 구성의 의미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즉, ‘-口’ 동명사 구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만 ‘-르다.’ 구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 한 것이다.

(15)와 (16a)는 앞뒤 내용의 상관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口’ 동명사 구성과 ‘-르다.’ 구성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지만, (16b-c)는 ‘九二是 두려워하고 호령함이니’와 ‘늦은 밤에 敵兵이 있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도다.’(성;하202) 그리고 ‘初六은 발꿈치에 멈춤이다.’와 ‘허물이 없으니, 永貞함이 이롭다.’(성;하347)는 상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르다.’ 구성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르다.’ 구성은 그 기원인 ‘ㄷ’로 인해 인과 관계를 맺어주는 기능이나 주관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여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한편, (16d)는 ‘德無常師, 主善爲師, 善無常主, 協于克一’(書經 3편 상서 8咸有一德)의 ‘協于克一’에 대한 해석인바, ‘흐느니이다’와 ‘홀디니이다’로 해석해도 되지만 ‘호미니이다’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는 ‘호미니이다’에 비해 ‘홀디니이다’는 인과와 같은 다른 기능을 더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계는 ‘-르다.’ 구성과 ‘-르 것’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 17) a. 可히 뼈 享홀 거시니라○홀디니라(역하3뒤)
 b. 器는 舊를 求티 아니홀디라○아니홀 거시라(서8앞)
 c. 恤티 마똥디로다○말 거시로다 非(역하4뒤)

(17a)는 ‘損 有孚 元吉 无咎 可貞 利有攸往 曷之用 二簋 可用享’ (역하41損)의 ‘可用享’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可히 祭享할 것이다’와 ‘할지니라’로, (17b)는 ‘遲任有言曰, 人惟求舊, 器非求舊, 惟新’ (서경 3편 尙書 7盤庚상)의 ‘器非求舊’를 석의한 것으로서 ‘그릇은 옛 그릇을 구하지 아니할지라’와 ‘아니할 거시라’로 해석해도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르다.’ 구성과 ‘-르 것’ 구성의 의미가 대동소이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17c)를 보자. ‘九二 惕號 莫夜 有戎 勿恤’(역하43夬)의 ‘勿恤’을 석의하면서는 ‘-르다.’ 구성으로는 해석하지만 ‘-르 것’ 구성으로 해석하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7a-b)는 ‘-르다.’ 구성이 ‘-르 것’ 구성으로 대체되는 일반성을 따르는 예지만 (17c)에서는 ‘ㄷ’의 어휘적 의미가 남아서 ‘당위’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르’ 동명사 구성과 ‘-르시.’ 구성의 관계를 알아보자.

- 18) a. 口說에 滕호미라○홀시라(역하1앞, 滕口說)
 b. 害티 아니호미라○아니홀시라(역하1앞, 不害)
 c. 中節를 써 호미라○中호 節로 써 홀시라(역하3뒤, 以中節)
 d. 田호매 禽이 업슬시라○업스미라(역하1앞, 田无禽)
 e. 上道를 承홀시라○호미라(역하9뒤, 承上道)
 f. 中으로 써 志를 홀시라○홀시라○志호미니라 下說非(역하4앞, 中以爲志)

(18a)는 ‘象曰 咸其輔頰舌 滕口說也’(역하31咸)의 ‘滕口說也’에 대한 석의인데, ‘구설에 오름이라’와 ‘오를시라’로 풀이해도 무관함을 보여준다. ‘-르다.’ 구성과 마찬가지로 ‘-르시.’ 구성도 ‘-르’ 동명사 구성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의미도 통하여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8b-e)의 예에서도 그러하다.²⁵⁾

25) (18b) 象曰 雖凶居吉 順不害也(역하31咸)
 (18c) 象曰 大蹇 朋來 以中節也(역하39蹇)

하지만 (18f)에서는 이들 간에 다소의 의미차가 있는 듯이 보인다. (18f)는 ‘象曰 九二 利貞 中以爲志也’(易하41損)의 ‘中以爲志’를 석의한 것인바, ‘중도로써 뜻을 하기 때문이다’ 또는 ‘홀시라’로 해석해도 좋으나 ‘志호미니라’ 즉 ‘뜻함이니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호-’는 ‘삼-’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뜻을 삼기 때문이다’로 풀이할 수 있는 데 대해, 마지막 ‘志호미니라’는 이런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²⁶⁾ 따라서 (18f)는 (18a-e)의 일반적인 예에 반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데 (18f)에서는 ‘-르시라’와 ‘-르식라’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다음 예들을 보기로 하자.

- 19) a. 行을 牽티 아니홀시라○홀시라(역하5앞, 行未牽)
 b. 志ㅣ 未홀시라○未홀시라 非也(역하1앞, 志未)

(19a)는 ‘象曰 其行次且 行未牽也’(역하44姤)의 ‘行未牽也’의 해석인데 이 예에서도 (18f)와 같이 ‘행함을 재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와 ‘(아니)할시라’로 해석해도 좋을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象曰 威其脢 志末也’(易하31咸)의 ‘志末’를 석의한 (19b)에서는 ‘-르식라’와 ‘-르시라’가 같은 의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20)에서 그 설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20) a. 象曰 威其脢는 志末也 ㄱ시라(선3;4)
 b. 象에 ㄱ오되 威其脢는 志ㅣ 未홀시라(선3;4)
 c. <象傳>에 말하였다. “감동함이 그 등살인 것은 뜻이 낮기 때

(18d) 九四 田无禽(역하32恒)

(18e) 象曰 安節之亨 承上道也(역하60節)

26) ‘홀시라, 홀시라’와 달리 ‘호미니라’에는 ‘-니.’가 개재되어 있어서 그러다고 하였는지 모르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이다.”(성;하21)

(20a-b)는 『주역석의』(선조판)에 나온 해당 부분의 구결과 언해를 보여주고 (20c)는 현대 번역을 보여준다. (18)의 예에 대한 『주역석의』(선조판)의 구결 부분에는 ‘글식라’란 구결을 단 곳은 없다. (18-19) 예 중 유일하게 (19b)에만 (20a)와 같은 구결을 붙인 것이다. 이는 ‘-르식라’에는 ‘-르시라’가 갖지 않은 의미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의미는 (20c)로 보아 아마 원인이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 논의된 구성체들을 모아 도표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²⁷⁾

21)

		호미니		홀거시니	
		호미니	홀디니		
		×호미니이다	홀디니이다		홀느니이다
		호미니	×홀디니		
		홀요미라	×홀디라		
			홀디니라	홀거시니라	
			마물디로다	×말거시로다	
	홀시라	호미라			
홀식라	홀시라	×호미니라			
홀식라	홀시라				
홀식라	×홀시라				

(21)에 의하면 ‘-르디.’ 구성과 ‘-르시.’ 구성은 대체로 ‘-르’ 동명사 구성, ‘-르 것’ 구성으로 대체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르디.’ 구성은 ‘-르 것’ 구성과 ‘-르’ 동명사 구성으로 대체되는 경향인 반면 ‘-르시.’ 구성은 ‘-르’ 동명사 구성으로 대체되는

27) 도표 중 ×는 『경서석의』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그르다’고 밝힌 곳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한다.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르디-’ 구성, ‘-르시-’ 구성, ‘-르’ 동명사 구성, ‘-르 것’ 구성이 가지는 의미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서석의』의 자료만으로 보면 이들은 대체로 통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이에 미미한 의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르디-’ 구성과 ‘-르시-’ 구성은 그 어원과 관련하여 ‘드, 스’의 의미(당위, 이유 등)를 지닌 것임에 비해 ‘-르 것’ 구성과 ‘-르’ 동명사 구성은 그런 의미가 중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유표적인 ‘-르디-’ 구성과 ‘-르시-’ 구성이 무표적인 ‘-르 것’ 구성과 ‘-르’ 동명사 구성으로 바뀌는 것이니, 이는 문법화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이다.²⁸⁾

3. 난해한 어휘

『경서석의』에는 주목할 만한 어휘들이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서종학(1989)에서 소개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 없이 과제로 남겨 두었던 아래 몇 어휘들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한다.

- 22) a. 方將 [보야호로 將춧 萬을 舞호라 一云 억써히 萬舞]²⁹⁾
 b. [然以此狀方將之意則可用以作訓則不可](시3앞)³⁰⁾

(22a-b)의 [] 부분은 詩經 邶風에 나오는 구절 ‘方將萬舞’의 ‘方

28) 이런 의미 차이가 그 당시 언중들의 의식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어-예를 들면 안동지역어-에서만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29) 원문의 띄어쓰기는 필자, [] 안은 협주임을 나타냄. 이하 동일함.

30) 그러나 이로써 방장의 뜻을 형상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로써 그 뜻을 새기는 것은 옳지 않다.

將'의 협주 부분이다.³¹⁾ '方將'을 '보야호로 將'으로, '萬舞'를 '萬을 舞호라'로 해석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一云 억셔히 萬舞”의 ‘一云’이 무엇의 ‘一云’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보야호로 將’을 ‘억셔히’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22b)에서 ‘이로써 방장의 뜻을 형상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로써 그 뜻을 새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것을 보면 ‘억셔히’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³²⁾

- 23) a. 越以鬮邁 [이에 鬮으로 써 邁호는다]
 b. 〇註卻著莢 [卻差後也 莢俗名늦고지라]
 c. [按此孫暉釋義之言 今俗皆用此說 然恐無葉後差後而著莢之理 卻與却同 凡莢皆先葉而著 此木之莢獨後葉而著 故曰先生葉卻著莢耳 非著葉之次差後而著莢也](시8앞)³³⁾

(23a)는 詩經 陳風의 ‘越以鬮邁’에 대한 주석 부분이다.³⁴⁾ ‘越以鬮邁’를 “이에 鬮으로 써 邁호는다”로 풀이한 후 ‘〇註卻著莢’를

- 31) 簡兮簡兮 方將萬舞 日之方中 在前上處(詩經 國風 3장 邶風, 簡兮)
 毛傳에서는 이에 대한 주석으로 “簡大也 方四方也 將行也 以干羽爲萬舞”라 하였으나 ‘方은 사방이고 將은 行이다’란 내용이 우리의 논의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詩經에 ‘方將’의 예가 더 있으나 이 역시 논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 32) ‘억셔히’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古語이거나 아니면 당시 안동지방의 방언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여러 면으로 안동 방언을 확인하였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 33) 극은 약간 뒤이다. 협의 속명은 ‘늦고지라’이다. 살펴보면, 이는 손경석의 말이다. 기금 세속에서 다 이설을 따른다. 그러나 아마 잎 약간 뒤이고 꼬투리가 붙는 이치는 없다. 극은 각과 같으니 무릇 명함은 먼저 잎이 나고 꼬투리가 붙으나 이 나무의 꼬투리는 홀로 잎이 난 뒤에 붙는다. 그러므로 먼저 잎이 나오고 틈새로 꼬투리가 붙을 뿐이지 잎이 붙은 다음 약간 뒤에 꼬투리가 붙는 것은 아니다.
- 34) (진략) 穀旦于逝, 越以鬮邁. 視爾如菼, 貽我握椒.(詩經 國風 12장 陳風, 東門之枌三章)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협주로 (23b-c)를 제시하고 있다. (23b)에서 ‘卻은 差後’이며 ‘蕪’의 속명은 ‘늦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23b)와 (23c)의 설명으로 보아 ‘늦꽃’은 ‘늦-꽃’으로 분석이 될 듯하다. ‘後’ 또는 ‘差後’란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건대 ‘늦’은 ‘늦-’(晩)의 의미로 파악되지만, ‘꽃’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다. ‘꽃’(花)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蕪’이 ‘꼬투리’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훈몽자회에는 ‘蕪’의訓을 ‘고토리’로 하고 있으나 만약 후자라면 ‘꼬투리’의 의미를 나타내는 ‘꽃’이란 단어를 찾아내게 된다.³⁵⁾

24) a. 越若來 [에우시와○넛우취여○越若히 來한]³⁶⁾

b. [○不必釋 今按傳只云古語辭 而不明言何等語辭 則其不可以今人語釋之固然 其曰不必釋甚通然 下文又迤邐而來 則來字不可不釋 當云 越若히 來한](서14뒤)³⁷⁾

(24a)는 書經의 召誥에 나오는 구절인 ‘越若來’를 석의한 부분이 다.³⁸⁾ ‘越若來’의 협주로 [] 부분을 제시한 후 연이어 (24b)를 제공하고 있다. (24a) ‘越若來’의 협주 중 마지막 “越若히 來한”으로 보면 ‘에우시와’와 ‘넛우취여’는 ‘월약히’ 또는 ‘월약히 來한’의 의미인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來’와 (24b)의 ‘來字不可不釋’에 주

35) 안동 방언일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36) 퇴계학연구원(1997;446)에는 ‘에우서 와’ 그리고 ‘넛우취여’로 읽고 있으나 앞의 ‘서’는 ‘시’의 ‘ㅅ’과 ‘ㅣ’ 사이에 비스듬한 선이 있어서 ‘ㅅ’로 본 듯 하지만 이를 ‘ㅅ’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37) 반드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살펴보면, 전에는 다만 ‘옛 어조사’라고만 하고 어떤 어조사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니 지금 사람들의 말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말이 매우 통하나 아래 문장에 또 ‘이래이래’의 ‘래’자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월약히 온’이라 해야 한다.

38) 惟太保先周公相宅, 越若來三月惟丙午朏越三日戊申(書經 4 주서 14 召誥)

목한다면 ‘에우시와’는 ‘에우시’와 ‘와’로 분석될 듯하다. 그렇다면 ‘에우시’는 ‘越若히’와 같은 의미이고 ‘와’는 ‘來’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우시’는 고어이든지 방언일 것으로 추정된다. 퇴계학연구원(1997;446)에는 ‘에우서’로 읽고 ‘넘어서’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全篇을 보면 ‘ㄱ’의 표기를 이 곳의 ‘ㄱ’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ㄱ’로 보기 힘들다.

한편 ‘넛우취여’에서는 ‘넛우’를 분석해 낼 수 있을지 모른다. (24b)의 ‘迤邐(而來)’의 뜻이 ‘이어서 (오다)’이므로 ‘넛-우’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취여’가 남게 되는데 ‘취여’의 의미 파악이 어렵다. 반면에 ‘넛우취’와 ‘여’로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역시 그렇게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퇴계학연구원(1997;446)에는 ‘넛으취여’로 읽고 ‘이르시어’로 풀이하고 있으나 이 역시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³⁹⁾

IV. 마무리

三經과 四書에 대한 퇴계 선생의 견해를 적어 놓은 게 『경서석의』이다. 경서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있어 왔으니 경서에 대한 구결을 단 일도 있었고 이와 같은 석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때를 지나면서 경서에 대한 언해가 이루어진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眉巖 유희춘은 퇴계의 석의를 언해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서가 언해되는 과정에서 『경서석의』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일이 남아 있을 것이다. 『경서석의』는 송정숙(1990)과 이충구(1992)에 의하면 경서구결과 경서언해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직역 방식으

39) ‘에우시’ 그리고 ‘넛우취여’ 역시 안동 방언이거나 고어일 가능성이 크다.

로 되어 있는 『경서석의』가 후대의 경서 언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각종 기록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서석의』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국어학적인 면에서 보면 ‘ㄷ, 스’ 등이 문법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종결어미의 기능을 고찰하고 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되는 자료라 생각한다.

이제 앞에서 논한 것을 요약하면서 글을 마치기로 한다.

- (가) 『경서석의』의 저술 시기에를 1567년 이전으로 상정하였다.
- (나) 『경서석의』에 대한 여러 기관의 도서해제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
- (다) 논의되지 않았던 『경서석의』의 기록에 대해 논하였다.
- (라) 아래 각 어미들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였다.

		호미니		홀거시니	
		호미니	홀디니		
		×호미니이다	홀디니이다		호느니이다
		호미니	×홀디니		
		호요미라	×혼디라		
			홀디니라	홀거시니라	
			마물디로다	×말거시로다	
	홀시라	호미라			
홀식라	홀시라	×호미니라			
홀식라	홀시라				
홀식라	×홀시라				

- (마) ‘-르디.’ 구성은 ‘-르 것’ 구성과 ‘-로’ 동명사 구성으로 대체 되는 경향인 반면 ‘-르시.’ 구성은 ‘-로’ 동명사 구성으로 대체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 (사) ‘-르디.’ 구성과 ‘-르시.’ 구성은 그 어원과 관련하여 ‘ㄷ,

스'의 의미(당위, 이유 등)를 지닌 것임에 비해 '-르 것' 구성과 '-르' 동명사 구성은 그런 의미가 중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유표적인 '-르다.' 구성과 '-르시.' 구성이 무표적인 '-르 것' 구성과 '-르' 동명사 구성으로 바뀌는 것이다.

- (아) 어휘 '억써히, 늦곳, 예우시와, 닛우취여'의 의미 파악을 시도하였다. '억써히'는 '보야호로 將欸'의 의미를 지녔고, '늦곳'은 '늦은 꼬투리', '예우시와'는 '넘어서 와'로, '닛우취여'의 '닛우'는 '이어<넘어>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위 (라)의 어미들이 가지는 구체적 의미를 밝히는 일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하여 각 어미들이 가지는 미묘한 의미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언해 자료를 풍부히 수집하고 검토분석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문법화로 인한 통사 구조의 변화를 의미와 함께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서석의』가 후대의 언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⁴⁰⁾

참고문헌

1. 기본자료

高峰全書 1~5, 성백효·이성우(2007) 역, 민족문화추진회.
四書三經, 지식공학(2001), WEB DB.

40) 이 글은 영남대학의 이강욱 교수, 정은진 교수, 정병석 교수와 한림대학의 이병기 교수, 안동의 류창석 님의 도움이 컸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新譯講讀 四書三經, 重版, 柳正基(2003) 감수, 명문당.
周易諺解(선조본), 홍문각(1992) 영인.
增補退溪全書, 대동문화연구원(1971).
退溪先生言行錄, 홍승균·이윤희(1999) 역, 퇴계학연구원.
退溪全書 22, 퇴계학연구원(1997), 아세아문화사.
懸吐完譯 周易傳義 上下, 성백효(1998) 역주, 전통문화연구원.

2. 논문

賈順先(1996), 이퇴계의 유가 경학에 대한 계승과 발전, 퇴계학보 90, 퇴계학연구원, pp.7-28.
김영호(2001), 이퇴계 『사서석의』에 나타난 경학적 특징, 퇴계학보 110, 퇴계학연구원, pp.299-324.
김영호(2004), 이퇴계 경학사상 연구(1~2) -『사서석의』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26~27, 동양철학연구회, pp.5-31, pp.221-253.
박소동(1996), 퇴계 「사서석의」의 경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한규(2005), 계문의 <고문진보> 전집 강록 고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종학(1989), 經書釋義에 대한 書誌 및 國語學的 考察, 인문연구 11-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24.
서종학(1991), 경서석의(해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정숙(1990), 사서언해서 간행의 정치·사회적 배경 - 이황의 「사서석의」와 이이의 「사서육곡언해」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논총 9-2, 부산대학교, pp.89-101.
심경호(1990), 退溪 經書釋義의 音注에 관하여, 진단학보 70, 진단학회, pp.151-166.
윤혁동(1991), 사서석의(해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가원(1971), 사서석의(해제), 증보퇴계전서, 대동문화연구소.
이윤희(1997), 사서석의와 삼경석의(해제), 퇴계학전서 22, 아세아문화사.
이충구(1992), 퇴계의 經書釋義에 대한 소고, 퇴계학연구 6, 단국대학

교 퇴계학연구소, pp.77-104.

장윤희(2001), 경서석의(해제), 奎章閣所藏 語文學資料, 서울대학교 규장각, (20-21).

최동주(2007), 문법화의 유형과 기제, 민족문화논총 3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521-550.

최석기(1996), 조선전기 경서 해석과 퇴계의 시석의, 퇴계학보 92.

최석기(1997), 퇴계의 시석의에 대하여, 퇴계학보 95.

황선엽(2003), 사서석의(전문가용 해제), 디지털한글박물관.

3. 단행본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류창석(2007), 침절 안졌디껴, 영남사.

小倉進平(1964=1920), 增訂補注 朝鮮語學史, 東京;刀江書院, 177-178.

이희대(1983), 퇴계문인록, 태양사.

정순목(1987), 퇴계평전, 지식산업사.

정재영(1996), 의존명사 ‘ㄷ’의 문법화, 태학사.

최현배(1982=1961=1940), 고친 한글갈, 정음문화사.

홍종선(1998),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

A Reexamination on 「Gyungseoseokeu」

Suh, Jong-Ha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scussion regarding Gyungseoseokeu [경서석의] and to investigate matters which haven't been discussed.

First of all, the author of the book and the time when it was written were covered. Considering several circumstances, this book which included collection of Korean translation by Lee, Whang(이황) was published by the later generation and the publication date of Jajaengnok(自淨錄) to which Lee, Whang added the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characters seems to trace back to the early 1550s.

There's nothing further to discuss in terms of a different version unlike Suh(1989). I'll point out and correct different descriptions which were found in several bibliographical explanations.

Two things can largely be focused on when it comes to reexamining Gyungseoseokeu in the perspective of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One thing is about phrasal expressions. I tried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in which '-르디-' or '-르시-' were changed into gerund form, '-르', and '-르 것'. Their meanings are usually identical, b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could be identified when looking into the details.

The other is about unusual vocabulary which were found in Gyungseoseokeu. I examined the meaning of '억셔히', '눅곳', '에우시와, and 닛우취여' and put forth the possibility that they are the dialect of Andong area or old vocabulary.

Key words : Lee Hwang, Gyeongseoseogeui, different version, '-르디-' construction, '-르시-' construction, '-르' gerund construction, '-르 것' construction, '억셔히', '눅곳', '에우시와, 닛우취여'

서종학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전화번호: (053)810-3192
전자우편: jhsuh@yu.ac.kr

이 논문은	2008년 4월 29일	투고하여
	2008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6월 30일	간행함